

THE WEALTH GUIDE

2025 Vol.12



Part.1 투자

2026년 금융시장 전망과 자산배분 방안

2026년 금융시장 전망과 자산배분 방안

한화생명 이명열 투자전문가

02. 789. 7441 / myung.lee@hanwha.com

(작성일 : 2025.12.5)

Summary

- 2025년 코스피는 사상 첫 4000선을 상향 돌파해 전세계 주가 상승률 1위를 기록. 2026년은 경기 회복과 실적 개선 전망 속 5000 기대 확산
- 2026년 원/달러 환율은 한미 금리 및 성장률 차 등 불균형이 완화되며 상승세 진정 예상. 원자재는 수급 감안 원유 약세, 금 강세 관측
- 전반적으로 투자자산에 유리한 환경으로 분석되나 AI 버블 논란 재점화, 무역 갈등 재격화 등 리스크 고려해 다양한 자산간 적절한 배분 바람직

2025년 글로벌 금융시장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동반 랠리

- 2025년 국내외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금은 가격이 급등하며 미국 국제 가격도 오르는 등 **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동반 강세**. 주요국들의 기준금리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에 의한 유동성 증가가 투자자산 가격을 부양하면서도, 트럼프의 급진적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나 화폐가치 하락 우려는 안전자산 수요를 자극
- 2025년 경제 및 금융지표 전망치(2024년 말 컨센서스 기준)와 실제치(2025년 11월 말 기준)를 비교해 보면, 한미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인하됐고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은 하향. **원화 약세는 예상보다 심화됐으며 주가와 금 가격은 전망치 상한을 크게 상회**

2025년 주요 경제 및 금융지표 현황과 2026년 전망

구분	2025년 전망치	2025년 실제치	2026년 전망치
한국 기준금리(%)	2.25~2.50	2.50	2.0~2.25
미국 기준금리(%)	3.50~3.75	3.75~4.0	3.0~3.25
한국 경제성장률(%)	1.9	1.0(e)	1.8
코스피 등락범위(pt)	2200~3100	2293~4221	3500~5500
원/달러(원)	1250~1470	1352~1479	1300~1500
100엔/달러(엔)	125~160	140~158	130~160
원/100엔(원)	860~990	915~1012	850~1100
국제유가(WTI, 배럴당 달러)	60~90	56~78	55~75
국제 금(온스당 달러)	2600~3100	2647~4359	3800~5000

* 자료 : 한국은행, 증권사 리서치, 국내언론 등 종합

코스피 사상 첫 4200 돌파, 4년 2개월만에 최고치 경신

- 2025년 코스피는 4월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며 **1027일 사상 처음으로 증가 기준 4000선을 상향 돌파**. 지난 9.10일 코스피는 3314.53pt로 마감해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 후 지속 상승하여 11.3일 4221.87pt까지 오름. 코스닥은 2023년 8월말 이후 최고
- 코스피는 올해 **11월 말까지 63.4% 급등해 전세계 주가 상승률 1위**이자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 기록 중. 코스피는 **2022년 9월 저점 이후 95% 이상 상승해 1990년대 이후 8번째 강세장** 전개. 이번 강세장에서의 최종적인 주가 상승률이 관건으로, **이전 7차례 강세장에서 최고 상승률은 300%**

코스피 강세장과 약세장에서의 등락률 (단위: %)

약세장			강세장		
기간	요인	등락률	기간	요인	등락률
'89.04~'92.08(29개월)	경상적자	-54	'92.08~'94.10(26개월)	대외개방	+148
'94.11~'98.06(44개월)	IMF 위기	-75	'98.06~'99.12(18개월)	수출호조	+278
'00.01~'01.09(21개월)	IT버블붕괴	-55	'01.09~'02.04(07개월)	내수급증	+100
'02.05~'03.03(11개월)	카드사태	-45	'03.03~'07.10(55개월)	글로벌호황	+300
'07.11~'08.10(12개월)	금융위기	-54	'08.10~'11.05(30개월)	초저금리	+137
'11.06~'11.10(05개월)	유럽위기	-25	'11.10~'18.01(75개월)	실적 개선	+57
'18.02~'20.03(25개월)	코로나19	-44	'20.03~'21.07(17개월)	경기부양	+127
'21.07~'22.09(15개월)	경기둔화	-35	'22.09~ 현재 (38개월+)	IT투자붐	+95

2026년 코스피 5000 기대... 증시 친화적 환경 유지 예상

- **2026년에는 코스피가 대망의 5000 포인트를 상향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**이 대세. 증권가는 내년도 코스피 하단을 3500~3700선, 상단을 주로 5000~5800선으로 제시. 코스피가 이번 강세장에서 7500~10000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대두. '오천피'와 더불어 **정부의 코스닥 경쟁력 강화안 기대 속 '천스닥'도 가시권**. 코스닥은 11월 말까지 34% 상승해, 나스닥(21%), 중국(16%), 일본(26%) 상회
- 단기 급등에 따른 추가 조정을 거칠 수는 있지만 2025년 추가 상승을 견인한 **우호적인 유동성 환경, AI 산업 확장**과 반도체 슈퍼사이클, **주주 친화적 정부 정책** 등 요인은 여전히 건재. **국내 경기 회복과 기업실적 향상**도 긍정적 요인으로, 2026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.8%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, **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30~35% 증가한 350~400조원 이상**으로 전망

증권사들의 2026년 코스피 전망치 (단위: pt)

증권사	전망치	증권사	전망치
신한투자	3700~5800	대신증권	상단 4000 중후반
씨티그룹	상단 5500	하나증권	상단 4650
KB증권	상단 5000(고점 7500)	한국투자	상단 4600
iM, NH, JP모건	상단 5000	유안타증권	3800~4600
메리츠증권	4000~5000	LS증권	상단 4600
삼성증권	4000~4900	키움증권	3500~4500
SK증권	3500~4850	DB증권	상단 4400
흥국증권	3500~4800	상상인증권	3600~4350
신영증권	3700~4750	한화투자	3200~4000

* 자료 : 증권사 리서치, 국내언론 등 종합

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관건, 반도체·방산·바이오·지주 등 주목



- 국내 증시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가 관건. 올해 추가 급등에도 코스피의 PER(12개월 순익전망치 기준 주가수익률)는 11.6배로 **최근 10년 평균치 수준**. 코스피 PER는 2021년 고점에는 14.6배에 달한 바 있음. **코스피의 PBR(주가순자산비율)은 1.36배**로 전고점을 소폭 웃돌았지만, 미국 S&P 500(5.59배), 대만(3.17배), 독일(2.05배), 일본(1.71배) 등에 비해 **여전히 저평가**
- **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도 주목**할 필요. 1차 상법개정으로 이사의 총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, 2차 상법개정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주주의 이익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. 또한 3차 상법개정안은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를 담고 있음. 내년부터 고배당 기업(배당성향 40% 이상 혹은 배당성향 25% & 전년비 배당액 10% 이상 증가) 투자시 배당소득 분리과세(14~30% 세율) 특례 시행 예정
- 2026년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수 밴드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은 **반도체(코스피 비중 40%), 제약바이오(코스닥 비중 18%), 2차전지(코스닥 비중 8%) 등의 강세**를 전제함. AI 투자 붐에 따른 반도체 수요 지속, 미국의 중국 바이오 규제와 국내 바이오 업체의 기술 수출 증대, 2차전지 업황 회복 등 예상. 그 밖에 각국 자주국방과 군비지출 확대에 의한 방산업과 저평가완화 기대되는 지주 등도 주목

한미 추가 기준금리 인하 시사, 주요국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완화

- 한국은행은 올 5월 기준금리를 2.5%로 인하한 이후 동결해 왔고, 당분간 금리를 추가 인하하거나 동결할 것임을 시사. 이번 **금리인하 사이클의 저점은 2.0% 수준**으로 파악. 한편 올 9월 미국은 1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했고, '26년에도 인하 기조 관측. 파월 연준 의장 임기는 내년 5월 마감되고, **차기 의장으로 거론되는 케빈 해시 국가경제위원회(NEC) 위원장이 강경 비둘기파**라는 점도 인하 기대 높임.
- 한국 정부의 추경 편성과 소비쿠폰, 미국 양적긴축 종료와 경기부양책, 일본의 대규모 재정투입, 중국 이구한신, 독일 경제활성화 정책 등 **주요국 재정정책 완화 중**

2026년 한국과 미국 통화정책 회의 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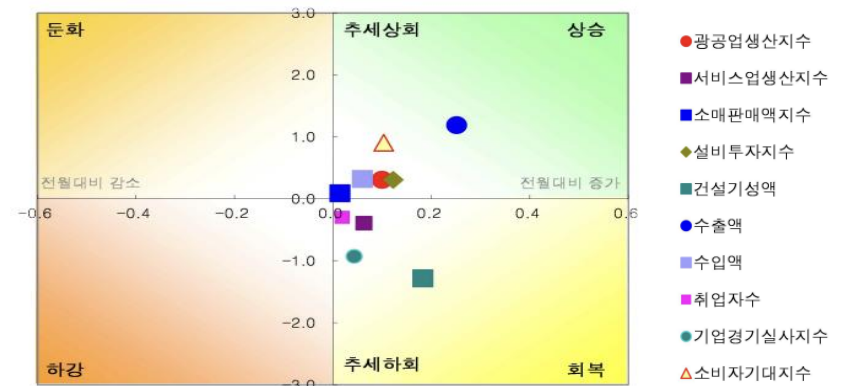
일정	한국 금융통화위원회	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
1월	1.15(목)	1.27(화)~28(수)
2월	2.26(목)	-
3월	-	3.17(화)~18(수)
4월	4.10(금)	4.28(화)~29(수)
5월	5.28(목)	-
6월	-	6.16(화)~17(수)
7월	7.16(목)	7.28(화)~29(수)
8월	8.27(목)	-
9월	-	9.15(화)~16(수)
10월	10.22(목)	10.27(화)~28(수)
11월	11.26(목)	-
12월	-	12.8(화)~9(수)

* 한국은 2월·5월·8월·11월, 미국은 3월·6월·9월·12월 금리 결정 후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

2026년 국내 경제 회복국면, 견조한 반도체 수출과 내수 개선

- **2026년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을 반등하며 회복 국면 예상** 한은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**종전 1.6%에서 1.8%로 상향 조정하고, 2027년에도 1.9%로 소폭 상승할 것**이라고 제시. 한미 무역협상 타결과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도 수출(+1.4%)과 설비투자(+2.0%)가 증가하고, **확장적 재정정책과 경제심리 개선에 소비(+1.7%) 회복세가 좀더 빨라질 전망**. 현재 경기순환시계상 상승국면 지표 6개, 회복국면 4개
- 2025년 미국 4개 빅테크(아마존,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, 메타)의 자본지출은 60% 급증, **2026년에도 35% 늘어난 4920억 달러 규모**로 예상돼 반도체 수요 지속 기대

한국 경기순환시계 모습 (2025년 9월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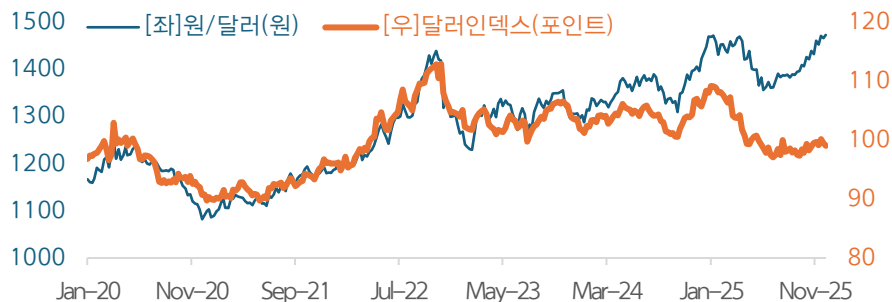


* 자료 : 국가통계포털

원/달러 환율 상승세 진정 예상, 한미 성장률 및 금리 격차 축소

- 2025년 원/달러 환율은 1500원에 육박하며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. **원/달러 환율이 1500원을 상회한 경우는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** 뿐. 올해 **원/달러 환율은 사상 최장 기간 1400원선 유지**. 한미 금리 및 성장률 격차(2025년 한국 1.0% vs 미국 1.9%), 국내 유동성(M2) 증가 가속화(연말 기준 한국 9.1% vs 미국 4.8%), 미국 주식 투자 확산(개인 해외주식 보유 1565억 달러로 30% 증가), 관세 협정에 따른 대미 직접투자(3500억 달러) 합의 등의 영향
- 올 들어 달러 인덱스는 8.8% 하락했지만, 원/달러 환율은 소폭 올랐고 6월 말 저점 이후로는 9.1% 상승. **2026년에 일시적으로 1500에 도달할 수 있지만, 불균형 요인(성장률 및 금리 격차 등)이 해소되면 하락 전망**. 균형환율은 약 1350 선으로 파악

2020 연초 이후 달러인덱스와 원/달러 환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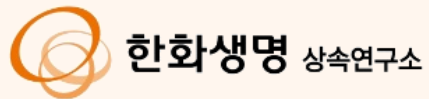
2026년 투자 기회와 위험 감안, 자산배분 통한 안정성과 수익성 도모

- 2026년 **주요국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완화, 국내 경기회복과 기업 실적 향상, 글로벌 AI 투자 붐** 등으로 국내외 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큼. 반면 **AI 버블 논란, 무역갈등 재격화, 일본 금리인상과 엔캐리 청산** 등은 위험요인
- 금융시장에 성장 기대와 예기치 못한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, **투자자산 집중 편입보다는 다양한 자산간 배분을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관리**할 필요가 있음. 투자자의 성향 혹은 목표에 따라 안정형·중립형·적극형으로 분류해 자산을 배분하고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

투자 성향 혹은 목표에 따른 자산 배분



- **MMT, 예금, 보험** : 유동성 확보, 원리금 보존, 생애위험 대비 상품
- **채권형(ETF, 신탁 포함)** : 상대적으로 수익률 높은 우량채권 선별
- **주식형 혹은 혼합형** : 한국, 미국, 중국 등 성장성 기대 증시 주목
- **대체투자(금, 외환 등)** : 실물자산과 기축통화로 포트폴리오 분산



필수 안내사항

- 본 자료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- 본 자료는 한화생명보험(주)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한화생명보험(주)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일반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의 지식재산권은 한화생명보험(주)에 있으므로 한화생명보험(주)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